

2020년 금융발전심의회
모두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의 역할

2020. 6. 11.

금 융 위 원 장
은 성 수

I.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위기의 터널을 신속히 빠져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터널 이후 나타날 새로운 길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터널을 통과한다고 해도 우리 앞에 나타날 길은
잘 포장된 고속도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II. 코로나19와 환경변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규모 전염병은
사회·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역시 전 세계 정치·경제·사회질서에
불가역적이고 근본적인 변화(paradigm shift)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계는 Before Corona, 즉 BC와
After Corona, 즉 AC로 나뉜다”거나,

* "There is the world B.C. -Before Corona- and the world A.C -After Corona-"
- NY times 칼럼니스트, Thomas Friedman -

“코로나 이후에도 ‘정상상태’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We will not return to the normality we took for granted until recently"
- FT 칼럼니스트, Martin wolf -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모습일지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빛나갈 수도 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변화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각자도생의 국제질서

국제관계 측면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2. 생산·유통·소비패턴 변화 : 생존의 문제가 된 디지털화

생산과 소비패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현상이었던 언택트(untact)가
이제는 경제활동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확대,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 온라인 쇼핑 급증 등
생산·유통·소비 전반의 생활패턴의 변화가
경제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지털화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산업과 경제의 경쟁력은
생산·유통·소비 방식의 변화에 맞춰
디지털화를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코로나19는 보건·건강·의료 등
공동체의 사회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경제적 포용성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날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경제의 디지털화는
불가피하게 고용충격, 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의 역할

오늘 금융발전심의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래할 금융의 미래와 대응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 가속화될 디지털 혁신시대의 금융

가속화될 비대면·디지털 혁신 시대에
금융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혁신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Big Tech 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혁신을 주도하고
금융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 내 또는 금융업권간 경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금융산업과 **Big Tech**와의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는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등
자금중개자로서 금융회사의 존재를 점점 열게 만들고,

‘인간 없는’ 금융서비스 공급을
나날이 확대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산업혁명, 자동화 혁명 과정에서
인간을 대체할 기계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창의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일자리는
여전히 증가했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혁신이 금융에 가져올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초저금리시대의 금융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 중앙은행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그 결과 글로벌 양적완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초저금리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마이너스 금리나, 무제한적 돈풀기를 주장하는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까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회사의 전통적인 수익모델이 통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대마진, 자산운용 수익률로 지탱했던 금융회사의 생존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또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방식은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3. 코로나19 한시적 위기대응조치, 정상화 속도·방식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은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늘려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기관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예대율,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러한 한시적 조치들의
정상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기업과 가계는 대출을 상환해 나가야 하고,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비용도 증가할 것입니다.

아직 이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상화 시기·속도·방식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정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4. 실물경제의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

구조적 잠재성장을 저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절실합니다.

우리의 의료, 바이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강국으로 비대면 교육, 각종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도
앞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우위가 있는 미래 성장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과거 지향적 금융’에서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미래 지향적 금융’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도 금융부문의 중요한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선도적 기능이 필요하겠지만,
민간금융과의 균형있는 발전도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금융

혁신의 이면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혁신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스함을 불어넣는
포용금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극복과 미래대비를 위해서도
사회구성원 전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외부충격이 왔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와 낙오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껏 창의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전망이 필수적입니다.

포용적 금융, 따뜻한 금융 등
구호는 매년 다르지만
정부가 튼튼한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포용금융의 관점에서도
정책적으로 조금 더 유념해야할 분야나 내용이 있으면
기탄없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V. 마무리 말씀

지난 2월,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미래를 예견하는 최상의 길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 美 UCLA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Alan Kay -

우리 경제와 금융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래를 꿰뚫어 보는 혜안(慧眼)을 얻어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